

# 화물연대·철도노조 오늘부터 줄파업

## 안전운임제 확대 놓고 5개월 만에 파업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등 차질 불가피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지속 등을 요구하며 24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확대 및 일몰제 폐지를 놓고 파업을 벌인 것은 지난 6월 이후 5개월 만이다.

이로써 국내 주요 수출입 품목과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등의 물류수송에 막대한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 화물연대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4일 0시를 기해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올해로 만료되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안전운임에 대한 전자종 및 품목 확대, 운임인상 등을 요구했다.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적·과속 운행이 잦은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화물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화물차주 및 운수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를 말한다.

도입 당시 시장 혼란의 우려가 제기돼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 한해 3년 일몰제(2020~2022년)를 시행하도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됐고, 이 제도는 지난 2020년 1월 시행돼 올 12월로 종료된다.

화물연대는 이번 파업에 조합원 2만5000명이 참여해 평택항, 부산항,

광양항을 포함한 주요 항만과 의왕내륙 컨테이너 기지(ICD) 등 물류거점을 봉쇄하고 비조합원인 상조회 일부도 동참 의지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특히 철강, 시멘트 조선 등 주요 업종과 정유부문에 집중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했다.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은 전날 열린 간담회에서 "국토교통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더 후퇴하는 악법을 들이밀었다"며 "정부가 6월 합의를 어겼기 때문에 파업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도 화물연대의 파업에 깊은 우려의 입장을 나타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의 이유로 내세우는 안전운임제 연장 문제는 이미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그런데도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를 예고하는 것은 민생경제에 찬물을 끼얹고 성장동력의 불씨를 꺼뜨리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화물연대는) 즉시 운송거부 방침을 철회하고 대화의 장으로 복귀하기 바란다"며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안전운임제의 제도개선사항은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과 원칙을 어기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하지 않겠다"며 "불법적 운송 거부나 운송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관용 없이 모든 조치를 강구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경제 6단체도 성명을 내고 "화물연대의 파업은 집단이기주의라고 반발하고 안전운임제의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성명을 통해 "수출과 경제에 미칠 심각한 피해를 우려한다"며 "화물연대 측이 즉각 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차주, 운송업체, 화주 간 상생협력에 나서기를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전국철도노동조합도 24일 준비투쟁을 시작으로 내달 2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 철도노조는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관련 법률을 준수해 파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열차를 이용하는 승객들의 불편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철도노조 중앙쟁의대책위원회는 전날 서울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탈선을 멈추기 위해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수개월간 진행된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단체교섭에서 코레일 관리자들이 승진 독식과 불평등한 임금체계를 고집하고 있어 본격적인 총력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또한 지난 5일 발생한 경기도 의왕오봉역 사망사고를 비롯해 올해에만

4명의 철도노동자가 직무 중 사망한 것과 관련해 노조 및 현장 닷만 하고 있는 국토부와 코레일을 비판했다.

철도노조는 오는 24일과 내달 2일 예고된 준비투쟁과 총파업은 불가피하지만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관련 법률을 준수해 (파업)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코레일은 24일 오전 9시부터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가동한다.

코레일은 노조의 파업에 대비해 역과 열차 안내에 가용 인력을 총 동원하고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한 파업 기간 중 승차권 환불(취소)과 변경 수수료 면제하고, 장시간 지연이 예상되는 열차에 대해서는 사전에 운행을 중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4일 운행이 중지되는 열차는 무궁화호(경부·호남·장항선), 새마을호(장항선), 광명열차(S-트레인) 등 8편과 25일부터는 10편의 열차가 운행이 중지된다.

코레일은 해당 열차를 예매한 고객들에게 개별적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안내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전철과 동해선의 일부 전동열차 지연이 예상되며 지연증명서가 필요할 경우 '코레일지하철' 앱 또는 홈페이지, 역(코레일 관할)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다행히 KTX 열차의 운행 중지는 현재까지 없지만 지연될 가능성도 있어 주말 대학원 수시전형의 논술과 면접시험 등을 앞둔 수험생들은 대체 교통수단을 확보해 달라고 코레일은 당부했다.

# 간호법 법사위 상정 또 불발... "간호법 즉각 제정해야"

## "여당의원들 간호법 상정 세차레 거부" 국힘 간호법 조속한 제정 적극 나서야

간호사 업무범위·처우개선 등을 담은 간호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상정이 23일 또 다시 불발되면서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수요집회가 23일 전국에서 모인 500여 명 간호사와 예비간호사,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 소속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열렸다.

신경림 대한간호협회(간협) 회장은 간호법 제정 촉구 성명을 통해 "법제사법위원회에 속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5월26일, 10월26일, 오늘

이렇게 세 차례나 간호법 상정을 거부했다"며 "국민의힘은 지난 21일 여의도 국회 앞을 뜨겁게 달렸던 '국민의 명령이다. 간호법 제정하라'는 전국 60만 간호인의 외침을 듣지 못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당장 소모적 정쟁을 중단하고 국민을 위한 법률제·개정에 나서야 한다"면서 "올해 정국회에서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에 대한 간호법을 즉각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협회는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초고령사회에 절실히 요구되는 간호·돌

봄 체계 구축을 위해서 간호법 제정이라는 역사적 소명을 결단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집회에서 간협 시도대표들은 호소문을 통해 간호법 법사위 상정을 반대하는 여당을 압박했다.

신용봉 경상북도간호사회 회장은 간호법 제정 촉구 호소문을 통해 "간호법은 국회 보건복지위를 여야 합의로 통과했음에도, 법사위는 상정조차 하지 않고 있다"면서 "언제까지 간호사의 열악한 처우와 인력소모 문제를 땀집시 정책으로만 해결할 것인가"고 지적했다.

또 "국민의힘은 국민의 목소리에 답하고 조속히 간호법 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간호법 제정을 통해 간호사들이 24시간 국민의 생명과 환자 안전을 지킬 수



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월숙 제주특별자치도간호사회 회장도 호소문을 통해 "간호법이 국회법에 따라 분회의에 부처지면 국민의힘은 국민과의 약속인 간호법 제정을 외면한 정당, 신뢰를 깨버린 정당이란 오직 남게 될 것"이라면서 "국민의힘은 국회 법사위에서 간호법 체계·지구심사와 분회의 통과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서선욱기자



## 보행자가 보이면 일시정지 해주세요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안국동사거리에서 도로교통공단 마스크트 호동이와 모델들이 '횡단보도 손짓 캠페인'을 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실험에 따르면 길을 건너는 보행자가 운전자에게 가벼운 손짓을 했을 경우 차량 일시정지 비율이 88%에 달한다.

뉴시스

## 김제서 지인 살해하려 한 60대... 범행 후 자해 생명에는 지장없어

흉기로 지인을 수차례 내려치고 자해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김제경찰서는 살인미수, 폭행 혐의로 A(67)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오후 7시 55분경 김제시 월봉동의 자택에서 B(49·여)씨를 흉기로 수차례 가격하고, 이를 말리던 C(47·여)씨를 주먹 등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이 출동하자 자해를 시도해 목을 크게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테이저건을 쏘 A씨를 제압했다. A씨와 B씨는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며,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피의자의 의식이 돌아오지 않아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다"며 "조사가 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 광양소방 생활안전순찰대, 쓰레기 소각 주의 당부

광양소방서(서장 서승호) 119생활안전순찰대(이하 순찰대)는 최근 내금마을에서 순찰 활동 중 단독주택 마당에서 쓰레기 불법 소각을 확인하고 안전조치 및 어르신에게 주의를 당부드렸다.



## 광주 남부소방, 동계 수난구조특별훈련 실시

광주 남부소방서(서장 이정자)는 119구조대원 19명을 대상으로 동계 수난사고를 대비하여 특별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최이슬기자



## 진도군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및 한마음 한마당 개최

진도소방서(서장 김광선)는 지난 22일 내외빈 및 의용소방대원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도군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및 한마음 한마당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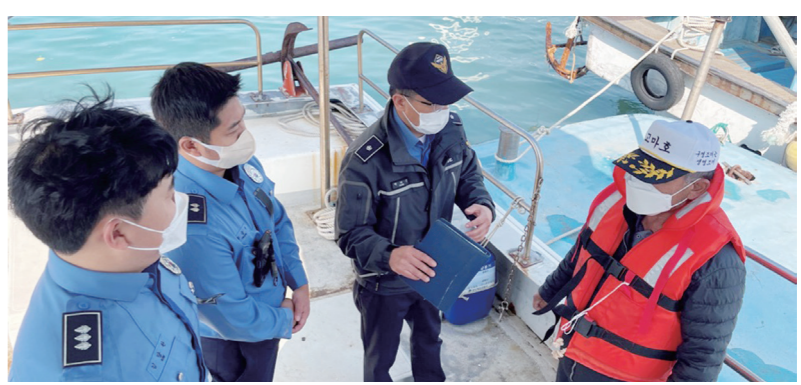
진도=조상용기자



## 영암군-영암소방서, 제2차 소방합동훈련 실시

영암군은 지난 21일 군청사 의회동 건물 앞 주차장에서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2022년 제2차 소방합동훈련을 실시했다.

영암=조대호기자



## 완도해경, 겨울철 도선 특별 안전관리 강화에 나서

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정수)는 다중이용 선박인 도선에 대해 겨울철 기상악화로 인한 해양사고와 기온하강에 의한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12월 31일까지 "겨울철 도선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완도=기동취재본부



## 나주경찰, 치안 불안요소 해소를 위한 2차 주민 설문조사 실시

나주경찰서(서장 박상훈)는 나주시민들을 대상으로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치안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차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나주=송준표기자